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Parenting Self-Efficacy:
Focusing on Chinese, Filipinas, and Vietnamese

신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최형성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Sill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yung Sung Cho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their husbands, thei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ffected their parenting self-efficacy, using a sample of 187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from China, the Philippines, or Vietnam, now living in Pusan and Gyeongnam, Korea. We used questionnaires based on the studies by Choe & Chung (2001), Shin (1997), Lee (1996), and Lee & Song (1991), and with the addi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subscales correlated positively with mother's educational level, social support, and Korean language level; husband's educational level; and family income, and negatively with mother's depression, husband's age, and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Multiple regressions indicated that husband's support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parenting self-efficacy.

주제어(Key Words) : 여성결혼이민자(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남편의 지원(husband's support)

I. 서론

양육효능감에 관한 많은 문헌들은 양육효능감이 양육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양육제공을 위한 노력 및 능력과 관련되어 있음에 대해 끊임없이 증명하여 왔고(Coleman & Karraker, 1997; Kotchick, et al., 1997), 아동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최형성, 2006)도 입증하여 왔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높은 양육효능감은 바람직한 양육행동 예를 들면 온정적, 긍정적, 반응적, 비차별적인 양육행동과 관련되고 낮은 양육효능감은 통제적, 강압적, 수동적, 소극적, 학대적 양육행동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ogenschnieder, Small, & Tsay, 1997; Coleman & Karraker,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Teti & Gelfand, 1991; Wells-Parker, Miller, & Topping, 1990).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나 우울의 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Cutrona & Troutman, 1986; Kotchick, et al., 1997),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자녀에게 질 높은 양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고(Coleman & Karraker, 1997),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Teti & Gelfand, 1991)고 한다.

양육효능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양육효능감이 양육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주고(Coleman & Karraker, 1997), 양육 관련 변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며(Cutrona & Troutman, 1986; Leerkes & Crokenberg, 2002; Teti & Gelfand, 1991),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안녕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측면에서(Gross, Fogg, Webster-Stratton, & Grady, 1995; Olioff & Aboud, 1991) 양육효능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또한 연구자들은 양육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유도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Gross et al., 1995; Olioff & Aboud, 1991).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중 하나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 전반에 급속하게 나타나는 저 출산의 현상과는 반대로 2008년의 경우 2007년 대비 31%의 자녀수의 증가를 보일 정도(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집단이다. 이는 종교적인 이유와 더불어 자녀 출산을 통해 한국에서의 정착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수 상황이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때문(최형성, 2009a)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의 높은 자녀 출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수적 증가와 함께 이들이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가족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 예를 들면 상업화된 결혼, 인권 침해적 중개절차와 같은 문제점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이후 사회문화적 고립, 빈곤, 가정폭력, 불화, 신분상의 불안정, 사회적 편견 등(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으로 인해 자녀양육의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시댁식구나 자외에 의해 자녀양육활동 수행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구수연, 2007;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2006; 전홍주, 배소영, 광금주, 2008).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보여주고 있는 과잉행동장애, 폭력성, 학교 수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 언어발달 지체(교육인적자원부, 2006), 취학 아동의 17.6%가 겪는 왕따의 경험(보건복지부, 2005) 등은 이들 대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빈곤층(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의 잠재적인 문제들과 복합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게 한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더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더욱 드물어, 어떠한 변인들이 이들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지에 관해 알기 어렵고, 이들의 양육에 대한 설명력도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졌으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할 때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연구되지 못한 제 변인들(아동 관련 변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변인, 남편 관련 변인, 가족생활 관련 변인 등)을 중심으로 이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양육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양육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선행연구(최형성, 2005)에서 다루지 못한 대상을 포함함으로써 국내의 다양한 집단에 속해 있는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에 대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들의 양육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제공에 기여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먼저 아동과 관련된 변인들과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보면, 아동의 성과 양육효능감의 경우 관련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체로 여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높이는 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최형성, 2005). 아동의 연령에 대하여서는 아동의 발달 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무관한 관계로 보고되고 있으나(최형성, 2005; Coleman & Karraker, 2003; Hess, Teti, & Hussey-Gardner, 2004; Mash & Johnston, 1983), 과잉행동증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령 증가가 어머니의 낮은 효능감과 관련됨이 보고되고 있다(Mash & Johnston, 1983).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역시 드물지만 아동의 출생순위와 양육효능감과의 무관한 경향성이 보고되고 있다(최형성, 2005). 그러나 첫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에게 많은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때로는 적응으로 인해 위기를 겪게 하는 일이라는 점(Levi-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에서 출생순위와 양육효능감과는 미약할지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높은 관련성을 입증하는 대체로 일관된 연구결과들(Cutrona & Troutman, 1986; Johnston & Mash, 1989)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남편의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형성, 2005; Holloway, Suzuki, Yamamoto, & Behrens, 2005; Shapiro & Mangelsdorf, 1994; Teti & Gelfand, 1991). 어머니의 우울은 대체로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보고(Coleman & Karraker, 1997; Surkan, et al., 2008; Teti & Gelfand, 1991)하고 있으나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경우는 두 변인 간의 정적인 상관을 보고하는 연구(Coleman & Karraker, 2000; Levy-Shiff et al., 1998; Scheel & Reickmann, 1998), 무관한 관계를 보고하는 연구(Bogenschneider et al., 1997; Hess et al., 2004; Holloway et al., 2005; Machida, Taylor, & Kim, 2002),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교육수준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음을 보고한 연구(최형성, 2005)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어떠한 관계가 주된 경향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어머니의 연령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함이 보고되었다(최형성, 2005; Bogenschneider et al., 1997; Coleman & Karraker, 2000; 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Hess et al., 2004).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이 높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Scheel & Reickmann, 1998), 관련없다는 연구(Coleman & Karraker, 2000),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혼용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는 연구(최형성, 2005)로

나뉘어져 있다.

가족의 수입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Coleman & Karraker, 2000)와, 가족수입이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에 따라 다른 관계를 보이며 하위 영역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자녀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등의 영역과 관련된다는 연구(최형성, 2005; Elder, Eccles, Ardel, & Lord, 1995; Hess et al., 2004)로 나뉘어져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어머니들과는 달리 낮은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아직까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드물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이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 역시 드문 실정이지만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의 부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Kotchick, et al., 1997; Levy-Shiff et al., 1998; Scheel & Rieckmann, 1998)들을 통해 이 두 변인 간의 부적 관계를 예측하게 된다.

한국 거주 기간 및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한국어 능력과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적응할 수 있는 기간과 적응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해당사회 언어의 숙련 정도에 대한 지각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인으로 고려된다. 한국어 능력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언어의 문제로 자녀 양육을 가장 어려워한다는 조사자료(여성가족부, 2007)에 근거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한국어 능력의 정도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이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는 의미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남편 관련 변인의 경우 어머니 관련 변인과 달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남편의 연령이 높고 무직인 경우가 많으며 직업이 있더라도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고 아내인 여성결혼이민자들보다 낮은 학력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이들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 유무 등의 남편 관련 변인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이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가치 있는 연구라 하겠다.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많은 제 변인들이 포함된 포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더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현실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제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에 관한 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선행 연구(최형성, 2005)와의 비교를 통해 두 집단의 양육효능감을 비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연령이 저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저연령의 아동을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변인(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교육수준, 한국어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우울, 취업 유무), 아동관련 변인(아동의 성, 연령, 출생순위), 남편 관련 변인(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 유무), 환

경 관련 변인(가족 수입)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아동 관련 변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변인, 남편 관련 변인, 가족생활 관련 변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아동 관련 변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변인, 남편 관련 변인, 가족생활 관련 변인 중 어떤 변인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얼마나 잘 예측해 줄 수 있는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

(n = 187)

변인	내용	변인	내용	
출신국(n, %)		아동의 출생순위(n, %)		
필리핀	98(52.4)	첫째	132(71.0)	
베트남	9(4.8)	둘째	49(26.3)	
중국	80(42.8)	셋째	5(2.7)	
여성결혼이민자 학력(n, %)		남편 학력(n, %)		
초졸	1(0.6)	초졸	19(10.7)	
중졸	24(13.2)	중졸	31(17.5)	
고졸	68(37.3)	고졸	94(53.2)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	30(16.5)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	16(9.0)	
대졸	47(25.8)	대졸	13(7.3)	
대학원졸	12(6.6)	대학원졸	4(2.3)	
여성결혼이민자 직업(n, %)	무 유	89(50.0) 89(50.0)	수입(n, %)	
남편 직업(n, %)	무 유	22(12.3) 57(87.7)	100만원이하	36(21.7)
아동의 성별(n, %)	남아 여아	93(49.7) 94(50.3)	101-150만원	39(23.5)
아동 평균연령 (SD, 범위)	7.16세 (1.66, 5세~10세)		151-200만원	45(27.1)
여성결혼이민자 평균 한국어거주기간 (SD, 범위)	9년 2개월 (2.42, 5개월~18년)		201-250만원	13(7.8)
여성결혼이민자 평균 연령 (SD, 범위)	36.31세 (4.67, 28세~51세)		251-300만원	13(7.8)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지각정도(n, %)			301-350만원	8(4.8)
전혀 못 한다	1(.6)		351-400만원	6(3.6)
거의 못 한다	7(4.2)		401만원이상	6(3.6)
보통이다	73(43.4)		남편 평균 연령 (SD, 범위)	44.49세 (4.64, 29세~57세)
대체로 잘 한다	56(33.3)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듣기 능력 지각 정도(n, %)	
매우 잘 한다	31(18.5)		전혀 못 한다	1(.6)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 지각 정도(n, %)			거의 못 한다	4(2.4)
전혀 못 한다	1(.6)		보통이다	68(40.0)
거의 못 한다	13(7.7)		대체로 잘 한다	61(35.8)
보통이다	65(38.4)		매우 잘 한다	36(21.2)
대체로 잘 한다	50(29.6)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 지각 정도(n, %)	
매우 잘 한다	40(23.7)		전혀 못 한다	5(3.0)
			거의 못 한다	27(16.1)
			보통이다	75(44.6)
			대체로 잘 한다	35(20.8)
			매우 잘 한다	26(15.5)

주. 배경변인별 무응답 제외 후 빈도수(백분율) 산출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경남 일대의 유치원 만 5세반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둔 여성결혼이민자(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어머니 1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하였다: 1)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출신일 것 2) 아동의 연령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서 유치원 만 5세반 사이일 것 3) 자녀 중 해당 연령의 아동이 여러 명일지라도 단 1명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응답할 것 4) 아동 및 남편과 동거하고 있을 것.

여성결혼이민자의 국가를 중국, 필리핀, 베트남으로 한정 지은 것은 이 여성들의 수가 출신국 순위 중 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창원여성의 전화, 2007),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대상도 포함하기 위한 설문지 번역 작업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을 이 연령대로 정한 이유는 현재 이 아동들이 주로 저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보건복지부, 2005; 승혜경, 2008)과 유치원 재원 이후부터 이들의 소재파악이 용이한 현실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아동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여아가 50.3%이었고, 아동의 평균 연령은 7.16세($SD = 1.66$)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71.0%로 가장 많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필리핀이 가장 많았으며(52.4%), 평균 연령은 36.31세($SD = 4.67$)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인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고 대졸인 경우가 25.3%로 그 다음 순이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0.0%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평균 연령은 44.49세($SD = 4.64$), 교육수준은 고졸인 경우가 53.2%로 가장 많았고 중졸인 경우가 17.5%로 그 다음 순이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87.7%이었다. 가정의 수입은 151-200만원인 경우가 27.1%로 가장 많았으며, 101-150만원인 경우가 23.5%로 그 다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보통이상의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였다. 37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등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수는 37점에서 18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를 검증한 결과, 하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 .84, .97, .85,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

신숙재(1997)가 제작한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였다. 25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는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등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지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를 검증한 결과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91, .93이었다.

3) 어머니가 지각하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

Sandhu와 Asrabad(1994)의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한 이승용(1996)의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총 3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미움', '변화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문화적 충격', '죄책감', '기타' 등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36점에서 1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를 검증한 결과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89, .72, .88, .86, .78, .61,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우울

Beck(1967)의 Depression inventory를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변안한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척도로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였다. 총 21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등을 측정한다. 총 점수는 0점에서 3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를 검증한 결과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의 연령, 성, 출생 순위,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한국에 거주한 기간, 한국어 수준(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가족 수입이 변인들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연령은 만 나이로 응답하도록 질문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별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대다수가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취업 유와 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출생 순위, 한국

거주기간은 정확한 숫자로 응답하도록 제시하였고, 아동의 성별과 가족 수입, 한국어의 영역별 수준,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교육수준은 해당 영역에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각 국가마다 교육 연한에는 차이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전문대 2년(대체로), 대학교 4년, 대학원(일반적인 석사기준) 2년인 데에 반해, 중국의 경우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전문대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반이며, 베트남의 경우 초등 5년, 중등 4년, 고등 3년, 전문대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이고, 필리핀의 경우 초등 6년, 고등(중·고등) 4년, 전문대 4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이다. 대학원 졸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석사 졸업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유학생들의 견해에 따라 교육연한을 책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위하여 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각국의 교육연한에 따라 교육수준을 각각 연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설문지였다.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 어머니들에게는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국어 질문지도 함께 주었다. 설문지 번역을 위해 한국어가 능숙한 중국 유학생 2명, 베트남 유학생 3명, 필리핀 유학생 2명과 영어에 능숙한 한국 학자 1명이 참여하여 각각 번역과 역번역 작업을 수행하였다. 역자들이 산출된 역 번역문과 원문을 대조 및 의논 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일일이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여야 하는 특성상 2007년 12월, 2008년 2월, 2008년 7월 등 연속적이지 않은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는 부산과 경남 일대 교육청, 유치원, 학교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소정의 선물과 함께 아동을 통해 어머니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전달되었다. 설문지는 배부된 202부 모두 회수되었으며, 응답의 성실함이 보이지 않는 15세트를 제외한 187부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하여 상관 분석(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 연구문제 2를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선행 단계로써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고, 공선성 존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허용도와 분산팽창요인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과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이미 <표 1>에 제시하였으므로, <표 2>에서는 나머지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영역은 3.89에서 4.17의 평균점수(SD .55-.68)를 보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각 하위영역은 .37에서 3.03의 평균점수(SD .81-.99)를 보였다. 사회적 지원은 하위 영역 각각 3.65와 3.83의 평균점수(SD .67, .70)를 보였고 우울은 2.64의 평균점수(SD .78)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 (n = 187)

변인	평균	표준편차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3.96	.62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4.14	.56
의사소통 능력	4.08	.55
학습지도 능력	3.89	.68
훈육 능력	4.17	.6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지각된 차별감	2.63	.84
향수병	3.03	.85
지각된 미움	2.53	.89
변화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2.39	.92
문화적 충격	2.81	.99
죄책감	2.37	.97
기타	2.66	.8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원		
남편의 협력	3.83	.67
주위의 도움	3.65	.70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2.64	.78

주. 남편의 협력과 우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최형성(2009b)에서 인용되었음.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과 제 변인들(아동 관련 변인들,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변인들, 남편 관련 변인들, 그리고 가정환경 관련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러나 아동의 성과 부모의 취업 유무는 명목척도에 해당하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상관관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r = .33, p < .001, r = .25, p < .001, r = .24, p < .01, r = .38, p < .001, r = .22, p < .01$)과 사회적 지원($r = .60 \sim .36, p < .001$)은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영역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

〈표 3〉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과 제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n = 187)

변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1)	(2)	(3)	(4)	(5)
아동의 연령	-.10	-.14	-.00	-.08	-.04
아동의 출생 순위	.06	.10	.05	.04	.04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04	-.03	-.00	-.07	-.07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33***	.25***	.24**	.38***	.2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	-.04	-.02	-.01	-.01	-.0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말하기 수준	.11	.12	.21**	.18*	.16*
듣기 수준	.08	.13	.21**	.14	.13
읽기 수준	.10	.15*	.21**	.22**	.15
쓰기 수준	.12	.13	.22**	.23**	.19*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지각된 차별감	-.05	-.13	-.14	-.08	-.19*
항수병	.05	-.06	-.09	-.01	-.13
지각된 미움	-.01	-.12	-.07	-.02	-.12
변화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08	-.11	-.20**	-.07	-.21**
문화적 충격	-.08	-.15*	-.18*	-.11	-.19**
좌책감	.03	-.05	-.11	.03	-.09
기타	-.09	-.13	-.17*	-.14	-.20**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원					
남편의 협력	.60***	.53***	.58***	.49***	.52***
주위의 도움	.38***	.42***	.46***	.40***	.36***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16*	-.16*	-.24***	-.14	-.17*
남편의 연령	-.15*	-.16*	-.10	-.18*	-.18*
남편의 교육수준	.16*	.14	.07	.19*	.08
가족 수입	.13	.09	.05	.11	.16*

주. (1)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2)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학습지도 능력, (5) 훈육 능력

* $p < .05$, ** $p < .01$, *** $p < .001$

을 보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훈육능력($r = -.16$, $p < .05$, $r = -.16$, $p < .05$, $r = -.24$, $p < .01$, $r = -.17$, $p < .05$), 남편의 연령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r = -.15$, $p < .05$, $r = -.16$, $p < .05$, $r = -.18$, $p < .05$, $r = -.18$, $p < .05$)과 매우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말하기 수준은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21$, $p < .01$, $r = .18$, $p < .05$, $r = .16$, $p < .05$)이 있었고, 듣기 수준은 의사소통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21$, $p < .01$)이 있었으며, 읽기 수준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15$, $p < .05$, $r = .21$, $p < .01$, $r = .22$, $p < .01$), 쓰기 수준은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22$, $p < .01$, $r = .23$, $p < .01$, $r = .19$, $p < .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차별감은 훈육 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19$, $p < .05$), 변화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능력, 훈육

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20$, $p < .01$, $r = -.21$, $p < .01$), 문화적 충격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훈육 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15$, $p < .05$, $r = -.18$, $p < .05$, $r = -.19$, $p < .05$), 기타는 의사소통 능력, 훈육 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17$, $p < .05$, $r = -.20$,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학습지도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16$, $p < .05$, $r = .19$, $p < .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수입은 훈육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16$, $p < .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연령, 출생순위,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한국거주기간은 양육효능감 각 하위 영역과 관련이 없는 것($r = -.14 \sim .10$, $p > .05$)으로 나타났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선행 단계로써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

〈표 4〉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의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 결과

(n = 187)

종속 변인	투입된 독립변인	제거된 독립변인	B	SD	누적된 R ²	F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남편의 협력		.39***	.07	.313	18.17***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06***	.07	.375	
	남편의 연령		-.02*	.10	.400	
	주위의 도움		.13	.02	.421	
	한국 거주 기간		-.03	.02	.433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남편의 협력		.34***	.07	.261	13.70***
	주위의 도움		.17**	.07	.310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04*	.02	.336	
	아동의 성		.17	.09	.351	
	아동의 연령		-.05	.02	.365	
의사소통 능력	남편의 협력		.40***	.06	.340	15.80***
	주위의 도움		.22***	.06	.402	
	한국어 말하기 수준		.20**	.10	.437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02*	.02	.457	
	아동의 성		.16	.08	.474	
	한국어 듣기 수준		-.25	.09	.485	
	지각된 미움		.19	.07	.495	
	변화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20	.07	.518	
	한국어 쓰기		.11	.06	.528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02	.02	.522	
학습지도 능력	남편의 협력		.33***	.07	.233	14.33***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09***	.02	.371	
	아동의 성		.22**	.09	.412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01*	.01	.442	
	한국어 쓰기 수준		-.11*	.06	.468	
	죄책감		.19**	.07	.498	
	기타		-.22*	.08	.524	
	주위의 도움		.15	.07	.538	
	한국어 듣기 수준		.12	.08	.548	
	한국 거주 기간		-.06	.02	.557	
훈육능력	남편의 협력		.37***	.07	.279	17.26***
	주위의 도움		.21*	.07	.313	
	문화적 충격		-.18*	.06	.335	
	죄책감		.15*	.06	.365	

주. 가변수 - 남아 : 0, 여아 : 1, 취업 무 : 0, 유 : 1

* p < .05, ** p < .01, *** p < .001

지 보기 위해 잔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이며 정규분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든 회귀분석의 Durbin-Watson계수는 1.83에서 2.25사이인 것으로 나타나 오차항간에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허용도와 분산팽창요인을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회귀모형의 독립변인들 간에는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양육

효능감의 경우 남편의 협력,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남편의 연령, 주위의 도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8.17, p < .001), 설명력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아동의 성, 아동의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3.70, p < .001) 설명력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의 경우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한국어 말하기 수준, 아동의 성, 한국어 듣기 수준, 변화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지각된 미움, 한국어 쓰기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5.80, p < .001), 설명

력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의 경우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도 능력의 경우 남편의 협력,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아동의 성,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한국어 쓰기 수준, 죄책감, 기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주위의 도움, 한국어 듣기 수준, 한국 거주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4.33, p < .001$), 설명력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의 경우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육능력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이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7.26, p < .001$), 설명력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 관련 변인(아동의 연령, 성, 출생순위),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변인(어머니의 교육수준, 연령, 취업 유무,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우울), 남편 변인(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 유무), 가정환경 변인(가족 수입)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얼마나 잘 예측해 줄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을 제외한 아동 관련 변인, 취업 유무를 제외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변인, 남편의 취업 유무를 제외한 남편 관련 변인, 가정환경 변인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 관련하여 살펴본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하위영역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변인 중 사회적 지원의 하위영역들과 교육수준은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영역들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국어 수준의 경우 각 영역별 한국어 수준은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들에 따라 관련성의 유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읽기 수준과, 의사소통 능력은 한국어 수준의 모든 하위 영역과, 학습지도 능력은 말하기, 읽기, 쓰기 수준과, 훈육능력은 말하기, 쓰기 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은 학습지도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과, 지각된 차별감은 훈육 능력과, 변화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능력, 훈육 능력과, 문화적 충격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훈육 능력과, 기타는

의사소통 능력, 훈육 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이나 한국 거주 기간은 양육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은 의사소통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영역과 매우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남편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학습지도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은 훈육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남편의 협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위의 도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육효능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경우 훈육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성의 경우,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영역에서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의 경우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학습지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은 학습지도 능력, 남편의 연령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죄책감은 학습지도 능력과 훈육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지각된 미움과 변화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능력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기타는 학습지도 능력에, 문화적 충격은 훈육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출생순위,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우울,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취업 유무, 남편의 교육수준, 가족수입은 양육효능감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 중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과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과의 유의한 정적 상관은 한국어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학습지도 능력만이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최형성(2005)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불일치적 결과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Coleman & Karraker, 2000; Bogenschneider et al., 1997; Hess et al., 2004; Holloway et al., 2005; Machida et al., 2002; Levy-Shiff et al., 1998; Scheel & Reickmann, 1998)에서 나타난 불일치적 경

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기에 본 연구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결과는 아니지만, 관련 연구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불일치적 결과의 원인 파악을 위하여 연구 대상의 차이 여부, 매개 혹은 중재 변인 존재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가족수입과 훈육능력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로 빈곤계층에 밀집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사료된다. 다른 가정에 비해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좀 더 낫다고 생각될 때 발생하는 상대적인 경제적 여유가 자녀 훈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머니의 경우 가족수입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과의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최형성(2005)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차이가 집단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일 수도 있음에 대해 주목하게 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한국어 수준과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과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한국어의 수준이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각 영역과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가 미숙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소통 능력 미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여성가족부, 2007)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반면 한국어주 기간과 양육효능감과의 무관한 관계는 거주기간과 비례하여 높은 양육효능감이 산출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거주기간이라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대한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 결과 남편의 지원과 주위의 도움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어머니 대상의 최형성(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남편과 주의사람들의 도움이 어머니가 지고 있는 양육의 짐을 덜어주고 해낼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지원체계이며 어느 집단이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아동의 연령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이 무관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최형성(2005), Johnston과 Mash(1989), Scheel과 Reickmann(1998), Dorsey 외(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한편 남편의 연령이 의사소통 능력을 제외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나머지 양육효능감

하위 영역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남편의 연령이 높고 자녀들이 저 연령층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남편의 높은 연령은 남편에게는 저 연령의 자녀를 돌보거나 지도하는 데에 무리가 되는 요인이며(현은애, 나중혜, 2009), 여성결혼이민자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관한 부담을 더욱 갖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의사소통 요인에서만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논의하기 어려우나, 연령의 고하를 떠나 한국어가 능통한 남편이라는 측면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우울과 양육효능감 하위영역들과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이 양육효능감과 부적의 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Coleman & Karraker, 1997; Surkan, et al., 2008; Teti & Gelfand, 1991)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학습지도 능력만이 우울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머니 대상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경향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결과인지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의 경향성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과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영역 간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하위 영역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추론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이제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라 하겠다. 출생순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머니 대상의 연구(최형성, 2005)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첫째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은 둘째를 양육하는 과정보다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예측을 낳게 하며, 출생순위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볼 수 있는 추후연구에 대한 기대를 낳게 한다.

본 연구의 남편의 교육수준과 여성결혼이민자의 학습지도 능력과의 유의한 정적인 상관에 관한 결과는 남편의 높은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습지도에 관한 정보를 아내에게 제공해 주고 이것이 아내의 양육 능력에 대한 믿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결과이라 하겠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 양육효능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협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최형성, 2005)에서도 같은 결과이었다. 확실히 양육이란 많은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부 간의 공동의 과업인 것은 분명하다. 부

부가 자녀 양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참여할 때 자녀 양육의 과제 완수가 좀 더 수월해 지고 좀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아버지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하여 부부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도 포함함으로써 아버지 참여를 높이고 부부가 함께 하는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한국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최형성, 2005)와 달리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경우 주위의 도움의 영향력이 한국어머니 대상의 경우보다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이 살아 온 터전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이 한국어머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의 현실과 관련된 결과로써 이러한 이유로 인해 더욱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의 필요성을 실감케 하는 결과라 하겠다.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어머니 대상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로써 남아보다 여아를 양육하는 일이 어머니들에게 훨씬 수월한 일이며 또 동성의 자녀 양육이 비슷한 성장 과정과 감정 경험의 공유를 가져오고 이 공유가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결과라 하겠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교육수준,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문화적응 스트레스, 아동의 연령 및 남편의 연령 등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이미 논의 첫째 부분에서 언급한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논의 둘째 부분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 객관적인 측정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정도에 관하여 측정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입증된 한국어 수준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볼 수 없는 한계점이 있으나, 지각의 정도가 객관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엄격한 객관성보다는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지각하는 불편함의 정도가 삶에는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한국어 수준을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연령대 아동을 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시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저 연령층에 밀집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나이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까지 그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

지 못하고 어린 유아들의 경우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 때문에 연구가 쉽지는 않으나, 차후 이 부분까지 연구가 이루어져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비교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재 또는 매개 변인의 존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남편의 협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남편과 함께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구수연(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0(12), 95-124.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승혜경(2008).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분석.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성가족부(2007). 말 안 통해 자녀양육이 가장 어려워요. 보도자료. <http://moge.korea.kr>에서 2007년 4월 13일 인출.
 이승용(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전홍주, 배소영, 광금주(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지원의 실재와 의미: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3), 161-186.

- 창원여성의 전화(2007). 멘토링 프로그램 자료집.
- 최형성(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111-123.
- 최형성(2006).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의 제 변인들에 대한 모형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4(11), 79-89.
- 최형성(2009a).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린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 탐색: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지**, 30(3), 197-211.
- 최형성(2009b).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 탐색. **한국아동학회지**, 30(5), 245-262.
-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한국아동학회지**, 22(3), 1-16.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주민 실태조사 결과.
- 현은애, 나중혜(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적응 프로그램 요구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75-688.
- Beck, A. T.(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Y.: Harper & Row.
- Bogenschneider, K., Small, A., & Tsay, J.(199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345-362.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1), 13-24.
- Coleman, P. K., & Karraker, K. H.(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Cutrona, C. E., & Troutman, B. R.(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lder, G., Eccles, J., Ardel, M., & Lord, S.(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771-784.
- Gross, D., Fogg, L., & Taker, S.(1995). The efficacy of parent training for promoting positive parent-toddler relationship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8, 489-499.
- Hess, C. R., Teti, D. M., & Hussey-Gardner, B.(2004). Self-efficacy and parenting of high-risk infants: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23-437.
- Holloway, S. D., Suzuki, S., Yamamoto, Y., & Behrens, K. Y.(2005).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Japanese mother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6(1), 61-76.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97-175.
-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imon, P., & Clark, L.(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parenting in inner-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47-461.
- Leerkes, E. M., & Crockenberg, S. C.(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2), 227-247.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 Machida, S., Taylor, A. R., & Kim, J.(2002). The role of maternal belief in predicting home learning

- activities in head start families. *Family Relations*, 51(2), 176-185.
- Mash, E. J., & Johnson, C.(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task situ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 337-346.
- Olioff, M., & Aboud, F. E.(1991). Predicting postpartum dysphoria in primiparous mothers: Roles of perceived parenting self-efficacy and self-esteem,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5, 3-14.
- Sandhu, D. S., & Asrabad, B. R.(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cheel, M. J., & Rieckmann, T.(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15-27.
- Shapiro, J. R., & Mangelsdorf, S. C.(199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ompetence in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6), 621-641.
- Surkan, P. J., Kawachi, I., Ryan, L. M., Berkman, L. F., Vieira, L. M., & Peterson, K. E.(2008).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 grow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1), 125-133.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ells-Parker, E., Miller, D. I., & Topping J. S.(1990). Development of control-of-outcome scales and self-efficacy scales for woman in four life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4), 564-575.

접 수 일 : 2010년 3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0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21일